

익산의 '숨은 보석' 홍보

현지실사·자료 정밀 검증·심사위원회 거쳐 최종 선정 임숙현씨 가족·최고령 느티나무·가족육아단 등 98선

익산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가를 잇는 사람은 누구일까. 주인공은 황등면 도촌마을에서 일생을 보낸 정근희(74) 이장 정 이장은 지난 1979년 1월 1일부터 올해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43년간 일가를 써 왔다.

일기잡에는 1970년대 익산의 모습부터 2021년 현재까지 익산의 변천사가 그대로 담겨 있다.

익산편의 독특하고 이색적인 자랑거리 다양한 분야의 최고기록을 보유한 인물로 구성된 익산편의 숨은 보석 이 선정됐다.

시는 20일 시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한 '익산편의 숨은 보석' 98선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익산편의 숨은 보석'은 지금까지 시

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잠재적 가치가 충분한 대상을 발굴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민공모와 자체 발굴을 통해 320건이 수집됐다.

이를 토대로 현지실사, 자료에 대한 정밀 검증과 선정 심사위원회 본인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98선이 선정됐다.

숨은 보석은 인물, 자연/환경, 문화/체육/예술, 행정, 산업/경제, 건설/교통, 건축, 교육/복지, 농축수산물, 기타 등 10개 분야로 나눠 선정됐다.

선정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물 분야는 전북 최초 야구선수이자 티 패밀러 임숙현씨 가족, 익산 최고령 이발사 김명수씨(89세), 암산 세계 챔피언 김간군(암산 7칸, 17세) 등 15명이다.

▲자연/환경 분야는 익산 최고령 느티나무(수령 600년 추정), 응포 구룡목 마을 차밭(최북단 야생차 군락지) 등 8건, ▲문화/체육/예술 분야에서는 가족육아단(김민수씨 가족),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지(이승원 생원 백폐교지) 등 2건, ▲행정분야는 전북 최초 한옥도서관(금마도서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센터(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 3건이 선정됐다.

▲산업/경제 분야는 익산 유일의 체합형 동물농장(역선하우스) 등 22건,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익산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1984년식 포니) 등 2건, ▲건축 분야는 대한민국 가장 오래된 역사(춘포역), 전국 최초 5년제 관립학교 건물(구, 이리농림학교 축산과 교사) 등 13건, ▲교육/복지 분야는 익산 최초 초등학교(합라초교), 익산 평균연령 최고령 학교(익산행복학교) 등 5건, ▲기타 분야에서는 60년 연속 환경정비 하는 마을(망성 라임마을) 등 9건이 선정됐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해신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0일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찾아 화장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랑의 어른신 안전손잡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해신동, '사랑의 안전손잡이'

5월 가정의 달 거동불편 어르신들 낙상사고 예방 위해 지원

군산시 해신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0일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찾아 화장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랑의 어른신 안전손잡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안전손잡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다리를 허리힘이 없어 일어나기 힘들 때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튼튼하게 고정된 손잡이다.

이번 사업은 관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가구 10가구(200만원 상당) 화장실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해, 안부 등을 살펴주며 지역사회 내에서 외롭고 소외된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실시됐다.

한 어르신은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

칠까 봐 걱정이 많았는데 튼튼한 안전손잡이를 설치해 줘서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진신성 해신동장은 "어르신 사고의 주원인인 화장실 내 낙상, 미끄러짐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속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찾아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해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건강음료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복지 실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시, 스마트건설기계 중심지로 도약

시험연구센터 조성 기술지원 기반 마련

군산시는 스마트 건설기계 상용화 및 기술지원 기반마련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내(새만금산업단지 52)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센터(부지면적 : 1만7,000㎡ / 건축연면적 : 2,081㎡) 조성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군산시,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등이 추진한 '스마트 건설기계용 융복합부품 평가기술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199억원을 투입해 이달 본격 가동될 예정으로 스마트 건설기계용 신뢰성 평가 장비 3종도 함께 구축하게 된다.

시는 이번 시험연구센터 조성으로 새만금에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 인프라와 건설기계 차세대 기술개발, 기업에로기술 지원, 건설기계 관련 부품의 성능인증 및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 구축된 인프라와 연계해 건설기계 미래 선도기술 연구 및 중소중견기업에 체계적 기술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험연구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그동안 해외에 의존하던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를 국내에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박진(주), (주)티엠시, 메타로보틱스(주) 등 지역 내 10여개 업체에서 스마트 시험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정책과 연계한 시험연구센터를 새만금 산업단지와 나포면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내 마련해 건설기계 산업 시험연구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하림, 아동센터연합회에 간편식 제품 전달

(주)하림이 지역을 위한 나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하림은 간편식 제품인 닭가슴살 및 샐러드 120박스(600만원 상당)를 지난 19일 익산지역 아동센터연합회에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림의 이번 기탁은 어린이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아동복지교사와 생활복지사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림은 앞서 지난 3일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조식 지원 사업 '아침머표' 일환으로 선물 꾸러미를 전달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학생들의 식사와 정서지원을 위해 익산교육지원청에 25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박길연 대표이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나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 휴가 군장병 4명 확진... 누적 415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10대 1명과 20대 1명, 40대 1명 50대 1명 등 총 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20대 군 장병인 전북 2134번(익산 412번) 확진자는 대전 1930번과 접촉 후 감염됐다.

이 확진자는 대전 확진자와 동반 휴가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확진자인 전북 2137번(익산 413번, 40대)과 전북 2138번(익산 414번, 10대), 전북 2139번(익산 415번, 50대)는 전북 2134번(익산 412번)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됐다.

이들은 모두 가족 관계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동선 확인과 함께 접촉자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시의회, 제235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익산시의회가 20일 제235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6월 11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시의회는 이 기간 동안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47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또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통한 지역발전의 대안을 제시한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미안마 군부 쿠테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방시능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유재구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 실현을 위해 집행부와 소통과 협치에 힘쓰며,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조촌동 Y식자재 백미·라면 기부

군산시 조촌동은 Y식자재마트(군산 디오션점, 대표 박연숙)가 지난 19일 가정의 달을 맞아 이웃돕기 물품 백미 10kg 20포, 라면 100박스(총3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Y식자재마트는 조촌동 착한가게 2호점으로 매일 정기기부를 하고 있으며, 매년 명절 및 가정의 달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기부활동을 이어가며 선한 영향력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박연숙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이지만 이렇게나마 나눔을 통해 가정의 달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더 많은 사랑을 환원하는 Y식자재마트 군산 디오션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옥 조촌동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꾸준한 이웃사



랑을 실천하고 있는 Y식자재마트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이웃을 세심히 살펴 복지사각지대 없는 조촌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부된 백미와 라면은 조촌동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2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